

화순 고인돌 유적지 활용 프로그램 운영

내일부터 12월말까지 비대면·사전에예약제 입장료 무료·상시 개방...“방역수칙 철저”

화순군은 '2021년 세계유산 화순 고인돌 유적지 활용 프로그램'을 5월 25일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다.

문화재청 지원 사업인 화순 고인돌 유적지 활용 프로그램은 화순고인돌 유적지 일대에서 운영한다.

'고인돌 마을 사람들 이야기'를 주제로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다양한 선사시대 체험 프로그램, 고인돌과 선사시대 생활상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비대면

프로그램과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화순 고인돌 유적지의 입장료는 무료이고 상시 개방한다.

체험 프로그램은 도곡면 효산리 선사체험장과 춘양면 대신리 문화체험관에서 매주 화요일~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사전 예약하면 프로그램을 더 안전하고 빠르게 체험할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다양한 선사체험 프로그램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군민과 방문객들의 심신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유적지 등



역사문화 시설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대문화재연구원 누리집(www.godae.co.kr)을 참고하거나 고대문화재연구원(062-651-3701)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박순철 기자

나주시, 혁신산단에 저압직류 핵심기기 인증지원센터 건립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모 선정...국비 84억원 확보 쾌거

나주시가 차세대 전력시장의 핵심 분야로 손꼽히는 직류산업 육성을 위한 '저압직류 핵심기기 인증센터'를 유치했다.

나주시는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한 산업혁신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저압직류 핵심기기 인증지원센터 기반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그린뉴딜 선도 과제의 일환으로 최근 태양광, 해상풍력과 같은 직류기반 신재생에너지와 직류부하 증가 흐름에 발맞춰 원활한 직류전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가정, 건물 등 전기 사용처에 직류를 공급하는 저압직류 배전시스템과 전력기기에 대한 시험(성능)평가와 인증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인증센터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나주 혁신산단에 구축 중인 '지능형 LVDC(저압직류) 실증사이트' 부지 내 전용공간에 들어선다.

전라남도과 나주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주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이 공동 추진하며 국비 84억,

도비 24억, 시비 36억, 민자 21억원 등 총 165억원이 투입된다.

연면적 1000㎡, 지상 2층 규모 센터 내부에는 LVDC ±750V, ±380V 전원 및 부하 설비, 수용가용 LVDC 핵심기기 성능시험 및 평가 장비 25종 등 국내는 물론 세계 최초 직류관련 기기 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첨단 장비를 갖춘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한전에너지 신기술연구소, 지능형 LVDC 핵심기술 개발사업, 고효율 전력설비 신뢰성 연구기반 구축사업 등 기 유치·추진 중인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사업과의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인증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지역 내 관련 기업의 제품 인증을 위한 비용적, 시간적 부담 경감은 물론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전력 ICT를 리스터, 나주혁신산단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전력기자재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해가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곡성군 월봉습지에서 꼬마잠자리 올해 첫 출현

보전가치 증대에 따라 문화재청에 문화재 지정 신청



월봉습지

곡성군 월봉습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자 세계에서 가장 작은 잠자리인 꼬마잠자리가 올해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꼬마잠자리는 성충의 길이가 10-15mm로 보통 잠자리의 3분의 1 정도이며 국내에서 가장 큰 잠자리인 장수잠자리의 5분의 1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작다.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잠자리 중 가장 작은 종류로 현재까지 지리산 등 국내 3곳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꼬마잠자리가 관찰된 월봉습지는 본래 휴경지 논이 습지로 변한 곳이다. 습지 상단에는 동방이 있고 수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천연

기념물이나 멸종위기 동식물이 다양하게 서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 및 수변식생의 무분별한 증식으로 꼬마잠자리의 서식처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총 4억원의 사업비로 꼬마잠자리 서식처 생태기반공사와 식생복원 및 생태시설물을 설치하였으며, 이를 통해 꼬마잠자리 서식처의 생태적 기능 향상을 꾀했다.

군 관계자는 "생태보전협력금 반환사업 및 생태관광 지역 지정 공고를 통해 꼬마잠자리의 생태적 환경보전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며, "천연기념물 지정과 월봉습지 보호구역 지정으로 생태관광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곡성=양혜영 기자

구례군,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도입

정원시설 신속방역 관리 추진

구례군은 정원시설 9개소에 대하여 전화 한통으로 통과 가능한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를 5월 24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안심콜 서비스는 시설별로 부여된 '080 안심콜' 번호로 전화를 걸게 되면 2초 이내에 출입기록이 등록되는 시스템이다. 저장된 기록이 4주 후 자동으로 삭제되는 등 개인정보 보호기능도 강화되는 첨단 출입관리 시스템이다.

군은 정원관리 시설별 안심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백두대간생태교양장 ▲지리산역사문화관 ▲구례목재문화체험장 ▲구례수목원 방문자센터 ▲종자학습관 ▲우리온실 ▲야생화테마랜드 방문자센터 ▲구례생태숲 ▲숲속수목가옥 관리사무소 총 9개소에 도입했다.

군은 코로나 확진자가 다중이용시설 등을 방문하였을 경우 동시간대 접



속자를 빠르게 파악하고, 줄을 서서 출입명부에 정보를 적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를 도입했다.

군 관계자는 방문객들이 제대로 정보를 기재하지 않는 허위 정보를 예방하고, 코로나 관련 접촉자 확인을 위한 역할 조사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담양 '창평국밥거리', 남도음식거리 선정

거리 상징물 설치·간판 정비 등 환경개선·관광 편의시설 확충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명품 음식문화거리 조성사업인 2021년 남도음식거리 공모사업에 담양 '창평국밥거리'가 최종 대상으로 선정됐다.

'창평국밥거리'는 1919년 창평 전통시장 개설과 함께 그 역사를 이어왔다. 시장 내에는 우시장과 도축장이 있었으며 자연스럽게 국밥을 파는 식당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도축장과 우시장은 현재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으나 국밥을 파는 식당은 전통시장과 함께 지금의 '창평국밥거리'로 이어져 슬로시티와 함께 창평면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됐다.

이번 선정으로 담양군은 올해부터 2년 간 10억 원을 지원받아 거리 상징물 설치와 음식점 간판정비, 보행로 및 주차장 확보 등 주변 환경개선과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창평국밥거리가 담양 국수거리, 떡갈비·대동밥거리를 잇는 담양의 명품 음식관광지로 우뚝서 '담양 천만관광시대'를 여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의 전통성과 상징성이 있는 창평국밥이 담양의 다양한 맛과 문화를 알리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담양 창평국밥은 새끼보로 만든 '암뽕순대'와 '암뽕순대국밥'이 특징이며 창평국밥거리에는 암뽕순대를 포함



해 암뽕순대국밥, 모듬국밥, 머리국밥, 내장국밥 등 다양한 국밥을 판매하고 있다.

담양=박종영 기자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균 <도문대작>

